

2023
고2 연매
창비

고2 언어와 매체 창비 | 2(1)(1) 음운의 체계와 변동 내신형 기출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최다 빈출 유형

선지나 <보기>에 제시된 단어에 적용된 음운 변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. ‘교체, 탈락, 축약, 첨가’가 두 번 이상 적용된 단어가 예시 단어로 주로 제시되며 적용된 음운 변동의 횟수를 같이 묻기도 하므로 여러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 단어를 중심으로 변동 과정을 모두 찾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

1. <보기>를 참조할 때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음운의 변동은 교체, 탈락, 축약, 첨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.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고,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.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고, 첨가는 없던 음운이 덧붙은 현상을 말한다.

- ① 맑다[막따]는 교체와 첨가가 일어난다.
- ② 바깥문[바간문]은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.
- ③ 놓이다[노이다]는 교체와 탈락이 일어난다.
- ④ 맛없다[마덜따]는 탈락과 축약이 일어난다.
- ⑤ 읊고[읍꼬]는 교체와 탈락이 일어난다.

2. <보기>의 ㉠~㉥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

- 쓰다 [활용] ㉠써, 쓰고, 쓰는 ...
- 낳다 [활용] ㉡낳아, 낳고, 낳는 ...
- 빵다 [활용] 빵아, ㉢빵고, 빵는...
- 잡다 [활용] 잡아, 잡고, ㉣잡는...
- 갈다 [활용] 갈아, 갈고, ㉤가는...

- ① ㉠: 교체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.
- ② ㉡: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.
- ㉢ ㉢: 축약이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.
- ④ ㉣: 탈락이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.
- ⑤ ㉤: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.

3. <보기>의 ㉦~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- ㉦ 굳이[구지], 발이[바치]
- ㉧ 막일[망닐], 앞일[암닐]
- ㉨ 덮지[덜찌], 멋지지[먼찌지]
- ㉩ 흠화덕[흐과덕], 값하다[가파다]

- ① ㉦에서는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나지만, ㉧, ㉨에서는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.
- ② ㉦에서는 ‘굳히다[구치다]’와 같이 자음의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

동이 있다.

- ③ ㉠에서는 ‘겉모양[건모양]’과 같이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다.
- ④ ㉡에서는 ‘숫고[솔꼬]’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,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.
- ⑤ ㉢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줄었지만, ㉠은 음운의 개수가 늘었고, ㉣과 ㉡은 음운의 개수에 변함이 없다.

4. <보기>의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.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㉠교체,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㉡탈락,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㉢첨가,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㉣축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	㉠	㉡	㉢	㉣
①	신라 [실라]	읽는 [일른]	굳이 [구지]	중지 [조치]
②	맨입 [맨닙]	여덟 [여덜]	피어도 [피여도]	꽃잎 [꼇닙]
③	좋아도 [조와도]	신여성 [신녀성]	외곶 [외골]	얻는 [언는]
④	잇몸 [인몸]	먹는 [멍는]	뒷일 [뒤닐]	깎잎 [깁닙]
⑤	닫는 [단는]	낱은 [나은]	숨이불 [숨니불]	입학 [이팍]

5. 다음의 ㉠~㉦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책을 ㉠읽는 모습이 아름답다.
- 창㉡밖에 밤비가 ㉢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
- ㉣뒹지 ㉤않은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.
- 이제 나도 어엿한 열㉦여덟이야.

- ① ㉠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[일는]으로 바뀌고, 유음화에 의해 [일른]으로 발음된다.
- ② ㉡는 ‘밖’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따라 [박게]로 연음되고, 된소리되기에 의해 [박게]로 발음된다.
- ③ ㉢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[속살꺼려]로 발음된다.
- ④ ㉣는 음절의 끝소리에서 탈락 현상이 나타나 [닥지]로 바뀌고, 된소리되기에 의해 [닥찌]로 발음되며, 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[안은]이 되고, [아는]으로 연음되어 발음된다.
- ⑤ ㉦는 ‘여덟’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탈락 현상을 거치지 않고 [여덜비야]로 발음한다.

6. <보기>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?

<보기>

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㉠,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㉡, 없던 음운이 새로 끼어드는 ㉢,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㉣이 있다.

- ① ‘난로’와 ‘만이’를 발음할 때 ㉢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- ② ‘떠서’와 ‘좋아서’를 발음할 때 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- ③ ‘앞마당’과 ‘부엌만’을 발음할 때 ㉠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- ④ ‘맛습니다’를 발음할 때는 ㉡의 음운 변동 과정

이 포함된다.

- ㉑ ‘쌓은’과 ‘잠가서’는 동일한 종류의 음운이 ㉒의 음운 변동을 겪는다.

7. 다음 ㉑~㉔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㉑ 좋지 → [조치] ㉒ 국밥 → [국빡]
 ㉓ 입학 → [이팍] ㉔ 밤낮 → [밤낱]
 ㉕ 읽지 → [익찌]

- ① ㉑, ㉒: ‘ㅎ’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.
 ② ㉒, ㉓, ㉔: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.
 ③ ㉓, ㉔: ‘깊다[깁따]’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.
 ④ ㉔: ‘독립[동닙]’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.
 ⑤ ㉓, ㉔: ‘아고[안꼬]’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.

8. <보기 1>의 음운 변동을 <보기 2>의 예시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 1>

- ㉑ 잇몸소리 ‘ㄷ, ㅌ’이 모음 ‘ㅣ’나 반모음 ‘ㅍ’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센입천장소리 [ㅈ], [ㅊ]으로 바뀌는 현상
 ㉒ 용언의 어간 말 ‘ㅎ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
 ㉓ 예사소리 ‘ㅂ, ㄷ, ㄱ, ㅈ’이 ‘ㅎ’과 합쳐져 거센소리 [ㅃ, ㅆ, ㅋ, ㆁ]으로 발음되는 현상
 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‘ㅣ’나 반모음 ‘ㅍ’로 시작하는 경우, 앞뒤의 말 사이에 ‘ㄴ’이 첨가되는 현상

- ㉕ 파열음 ‘ㅂ, ㄷ, ㄱ’이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 [ㅁ, ㄴ, ㅇ]으로 바뀌는 현상

<보기 2>

- ㉑ 굳이[구지] ㉒ 발이랑[반니랑]
 ㉓ 낳은[나은] ㉔ 당소[다쏘]
 ㉕ 한여름[한녀름] ㉖ 입학[이팍]
 ㉗ 밭에[바테] ㉘ 들일[들릴]

- ① ㉑가 일어나는 예는 ㉑와 ㉒이다.
 ② ㉒가 일어나는 예는 ㉓와 ㉔이다.
 ③ ㉓가 일어나는 예는 ㉕와 ㉖이다.
 ④ ㉔가 일어나는 예는 ㉒, ㉕, ㉖이다.
 ⑤ ㉕가 일어나는 예는 ㉒, ㉘이다.

필수 유형 1

모음 체계표와 자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체계표에 빈칸을 뚫고 해당 음운에 관해 묻는 쉬운 문제도 있었으며, 자음의 경우 음운 변동 현상과 연계하여 음운 변동 전후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의 변화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.

9. <보기>의 ㉑~㉓, ㉕~㉗에 들어갈 내용과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

<보기>

<국어 단모음 체계표>

㉑ ㉒ ㉓	전설 모음	후설 모음	
	평순 모음	원순 모음	평순 모음
㉕	원순 모음	평순 모음	원순 모음
고모음	(a)		
중모음	(b)	(c)	(d)
저모음			(e)

- | | | | |
|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㉑~㉓ | ㉕~㉗ | |
| ① | ㉑ 혀의 앞뒤 위치 | (a): ㅣ | 전설 모음으로, 발음할 때 입이 제일 많이 벌어진다. |
| ② | ㉑ 혀의 | (b): ㅁ | 입술 모양은 ㉕와 같이 평 |

- ③ ‘배’를 발음할 때는 ‘베’에 비해 입을 더 작게 벌려서 혀의 위치를 높여야 해.
- ④ ‘베’를 발음할 때는 ‘배’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.
- ⑤ ‘배’를 발음할 때는 ‘베’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혀를 뒤쪽으로 보내야 해.

12. <보기>를 바탕으로 자음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<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표>

조음 위치 조음 방법		조음 위치				
		양순음	치조음	경구개음	연구개음	후음
파열음	예사소리	ㅂ	ㄷ		ㄱ	
	된소리	ㅃ	ㄸ		ㄲ	
	거센소리	ㅍ	ㅌ		ㅋ	
파찰음	예사소리			ㅈ		
	된소리			ㅉ		
	거센소리			ㅊ		
마찰음	예사소리		ㅅ			ㅎ
	된소리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- ① ‘입+만→[임만]’은 첫음절 끝의 파열음이 자음과 결합하여 비음으로 바뀌는 변동이군.
- ② ‘광한루→[광할루]’는 인접한 유음으로 인해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변동이군.
- ③ ‘밭+이→[바치]’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변동이군.
- ④ ‘불꽃→[불곶]’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군.
- ⑤ ‘막론→[망논]’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군.

13. <보기 1>에 따라 <보기 2>의 제시어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?

<보기 1>

<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(표)>

조음 위치 조음 방법	조음 위치				
	입술소리	잇몸소리	센입천장소리	여린입천장소리	목청소리
파열음	ㅂ	ㄷ		ㄱ	
	ㅃ	ㄸ		ㄲ	
	ㅍ	ㅌ		ㅋ	
파찰음			ㅈ		
			ㅉ		
			ㅊ		
마찰음		ㅅ			ㅎ
		ㅆ			
비음		ㅁ	ㄴ		ㅇ
유음			ㄹ		

<보기 2>

	제시어	조음 위치, 조음 방법의 변동
㉠	협력 [협력]	앞 자음의 조음 방법과 뒤 자음의 조음 위치가 바뀐다.
㉡	미닫이 [미다지]	앞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.
㉢	달님 [달림]	뒤 자음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.
㉣	숲속 [숲속]	앞 자음과 뒤 자음의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.
㉤	박사 [박싸]	뒤 자음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.

- ① ㉠, ㉡ ② ㉡, ㉣ ③ ㉣, ㉤
- ④ ㉢, ㉤ ⑤ ㉣, ㉤

14. <보기>의 '자음 체계표'를 참고하여 ㉠~㉣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<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표>

조음 위치 ↓ 조음 방법	입술 소리	잇몸 소리	센입 천장 소리	여린 입천장 소리	목청 소리
파열음	ㅂ	ㄷ		ㄱ	
	ㅃ	ㄸ		ㄲ	
	ㅍ	ㅌ		ㅋ	
파찰음			ㅈ		
			ㅉ		
			ㅊ		
마찰음		ㅅ			ㅎ
		ㅆ			
비음	ㅁ	ㄴ		ㅇ	
유음		ㄹ			

㉠ 깎는[깡는], 짓는[진는], 앞마당[암마당]
 ㉡ 담력[담녁], 강릉[강능], 막론[망논], 협력[협녁]
 ㉢ 놓고[노코], 만형[마형], 좁히다[조피다], 달지[달치]
 ㉣ 줄넘기[줄럼끼], 대관령[대괘령], 할네[할레], 달는[달른]
 ㉤ 음운론[음문논], 생산량[생산냥]

- ① ㉠을 보면 받침소리 [ㄱ, ㄷ, ㅂ]은 'ㄴ, ㅁ' 앞에서 조음 위치의 변화 없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비음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.
- ② ㉡을 보면 받침소리가 파열음이 아닌 경우에도 'ㄹ'이 [ㄴ]으로 발음되거나 'ㄹ' 앞에 오는 파열음 받침소리가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비음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.
- ③ ㉢을 보면 받침 'ㅎ'이나 첫소리 'ㅎ'과 결합되는 예사소리 'ㄱ, ㄷ, ㅂ, ㅈ'이 조음 위치를 달리하여 각각 거센소리 'ㅋ, ㅌ, ㅍ, ㅊ'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.

- ④ ㉣을 보면 'ㄹ'의 앞이나 뒤에 오는 'ㄴ'이나 혹은 'ㄹ, ㄹ' 뒤에 연결되는 첫소리 'ㄴ'은 조음 위치의 변화 없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유음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.
- ⑤ ㉣과 ㉤을 보면 'ㄹ' 앞에 'ㄴ'이 오는 경우에 'ㄴ'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[ㄹ]로 발음될 수도 있고, 'ㄹ'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[ㄴ]으로 발음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.

필수 유형 2

음운 변동 현상 중 '된소리되기'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 네 가지에 따라 예시를 연결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된소리되기의 환경과 예를 짝지어 공부해야 합니다.

15. <보기>의 ㉠, ㉡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

<보기>

경음화란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. 경음화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난다. 파열음 뒤에서, ㉠용언의 어간 말 비음 뒤에서, ㉡관형사형 어미 '-(으)ㄹ' 뒤에서, 한자어 내 "ㄹ" 뒤에서 일어난다.

	㉠	㉡
①	점- + -지→[점찌]	먹을 것→[머글꺼]
②	국 + 밥→[국뺨]	할 것을→[할꺼슬]
③	삼- + -지→ [삼찌]	출석→[출씩]
④	책 + 방→[책뺨]	볼 수→[볼쑤]
⑤	담- + -자→[담짜]	발달→[발딸]

16. <보기>의 ㉠, ㉡의 예를 연결 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국어의 된소리되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중 규칙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㉠ㄱ(ㄱ, ㅋ, ㆁ, ㄷ, ㅌ, ㄸ, ㅊ, ㅌ, ㅍ, ㅍ, ㅍ, ㅍ)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.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예외가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.

다른 하나는 ㉡어간 받침 ‘ㄴ(ㄴ), ㄹ(ㄹ)’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. 이 된소리되기는 앞의 된소리되기와는 달리 조건이 까다롭다. 용언이라는 전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간 뒤에 오는 형태소도 대개 형식 형태소 중에서 어미에만 국한된다.

	㉠	㉡
①	뒹개	감기[病]
②	굳이	앉고
③	발달	넘고
④	꽃고	젊고
⑤	웁다	답아

17. <보기>의 ㉠~㉣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우리말의 된소리되기(경음화)는 다음과 같이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아닌 자음 뒤에서도 나타난다. (다만, 피동, 사동의 접미사 ‘-기-’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)

- 구두를 ㉠**신**자.
- 배탈이 나서 아이를 ㉡**끓**기다.
- ㉢**갈**증이 심하다.
- 그는 내가 ㉣**할** 것을 알고 있다.

① ㉠은 어간 받침 ‘ㄴ’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다.

- ② ㉡는 어간 받침 ‘ㄹ(ㄹ)’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다.
- ③ ㉢는 한자어 ‘ㄹ’ 받침 뒤에서 연결되는 ‘ㄷ’이 경음화되는 예이다.
- ④ ㉣는 관형사형 ‘-(으)ㄹ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’이 경음화되는 예이다.
- ⑤ ㉣를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.

18. <보기>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제24항 어간 받침 ‘ㄴ(ㄴ), ㄹ(ㄹ)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ㄷ, ㅌ, ㅊ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 …… ㉠

제25항 어간 받침 ‘ㄹ, ㄹ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ㄷ, ㅌ, ㅊ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 …… ㉡

제26항 한자어에서, ‘ㄹ’ 받침 뒤에 연결되는 ‘ㄷ, ㅌ, ㅊ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 …… ㉢

다만, 같은 단어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 …… ㉣

제27항 관형사형 ‘-(으)ㄹ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ㄷ, ㅌ, ㅊ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 …… ㉤

- ① ㉠에 따르면 ‘제자리에 앉아.’에서 ‘앉다’의 표준 발음은 [안따]겠군.
- ② ㉡에 따르면 ‘넓게 펼쳐진 바다’에서 ‘넓게’의 표준 발음은 [널게]겠군.
- ③ ㉢에 따르면 ‘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’에서 ‘말살(抹殺)’의 표준 발음은 [말쌀]이겠군.
- ④ ㉣에 따르면 ‘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다.’에서 ‘절절(切切)하다’의 표준 발음은 [절절하다]겠군.
- ⑤ ㉤에 따르면 ‘일은 하면 할수록 많아진다.’에서 ‘할수록’의 표준 발음은 [할쑤록]이겠군.

정답 및 해설

1. 정답 ⑤

‘윙고’는 [윙고→읍고→읍꼬]의 변동 과정을 거치며, 순서대로 자음군 단순화(탈락), 음절의 끝소리 현상(교체), 된소리되기(교체)가 일어난다.

- ① 맑다[막따]는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- ② 바깥문[바깸문]에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- ③ 놓이다[노이다]에는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- ④ 맛없다[마뎡따]에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
2. 정답 ③

‘빵고[빠코]’는 ‘ㄱ’과 ‘ㅎ’이 합쳐져 [ㅋ]으로 발음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는 발음 현상일 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.

- ① ‘쓰- + -어→써’에는 교체가 아닌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.
- ② ‘날아[나아]’에는 탈락이 나타나기는 하지만,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.
- ④ ‘잡는[잡는]’은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, 탈락이 아닌 교체가 나타난다.
- ⑤ ‘갈- + -는→가는’은 교체가 아닌 탈락이 나타나고,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.

3. 정답 ③

㉠의 ‘막일[막닐→망닐]’은 동화음 ‘ㄴ’이 피동화음 ‘ㄱ’의 뒤에 있고, ‘앞일[압닐→암닐]’도 동화음 ‘ㄴ’이 피동화음 ‘ㅂ’의 뒤에 있으며, ‘겉모양[견모양→건모양]’ 역시 동화음 ‘ㄹ’이 피동화음 ‘ㄷ’의 뒤에 있다.

- ① ㉠은 음운 변동 중 한 번의 교체가 일어나며, ㉡은 첨가 1번, 교체 1번으로 총 2번, ㉢은 교체 2번, ㉣은 탈락 1번, 축약 1번으로 총 2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.
- ② ‘굳히다[구티다→구치다]’는 파열음인 ‘ㄷ’이나

‘ㅌ’이 파찰음인 ‘ㄷ’이나 ‘ㄷ’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(구개음화)이 일어난다.

④ ㉤의 ‘뎡지[뎡지→뎡찌]’, ‘뎡지지[뎡지지→뎡찌지]’와 ‘슛고[슛고→슛꼬]’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.

⑤ ㉥의 ‘흙화덕[흐과덕]’은 9개에서 7개로, ‘값하다[가파다]’는 8개에서 6개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. ㉦의 ‘막일[망닐]’은 5개에서 6개로, ‘앞일[암닐]’은 4개에서 5개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. ㉧의 ‘굳이[구지]’와 ‘밭이[바치]’는 변동 전후 음운의 개수가 4개로 같고, ㉨의 ‘뎡지[뎡찌]’, ‘뎡지지[뎡찌지]’ 역시 변동 전후 음운의 개수가 4개로 같다.

4. 정답 ⑤

‘닫는[단는]’은 교체 중 비음화, ‘낱은[나은]’은 탈락 중 ‘ㅎ’ 탈락, ‘숨이불[숨니불]’은 첨가 중 ‘ㄴ’ 첨가, ‘입학[이팍]’은 축약 중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.

- ① ‘굳이[구지]’는 첨가가 아닌 교체 현상이다.
- ② ‘맨입[맨닙]’은 교체가 아닌 첨가 현상이고, ‘꽃잎[곤닙]’에는 교체와 첨가가 일어날 뿐 축약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.
- ③ ‘좋아도’를 [조와도]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을 추가하여 발음한 것으로 표준 발음은 [조아도]이다. 즉 ‘좋아도[조와도]’에는 교체가 아닌 첨가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. ‘신여성[신녀성]’은 탈락이 아닌 첨가 현상이고, ‘외곬[외골]’은 첨가가 아닌 탈락 현상이고, ‘얻는[언는]’은 축약이 아닌 교체 현상이다.
- ④ ‘먹는[멍는]’은 탈락이 아닌 교체 현상이고 ‘깟잎[깟닙]’은 축약이 아닌 교체와 첨가 현상이다.(‘잇몸’, ‘뒷일’, ‘깟잎’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보기도 함.)

5. 정답 ⑤

겹받침 ‘ㄹ’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, 즉 형식 형태소인 ‘-이야’를 만났으므로 ‘ㄹ’ 중 뒤에 위치한 ‘ㅂ’을 연음하여 [여덜비야]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.

- ① ‘읽는’은, 겹받침 ‘ㄹ’ 뒤에 자음이 이어졌으므로 ‘ㄱ’이 아닌 ‘ㅋ’이 탈락되어 [익는]으로 바뀌고 비음화에 의해 [잉는]으로 발음된다.
- ② ‘밖에’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따

랐기 때문에 ‘ㄱ’을 연음하여 [바께]로 발음해야 한다.

- ③ ‘속살거리’ 중 ‘속살’은 받침 ‘ㄱ’에 ‘ㅅ’이 이어졌으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[속쌀]로 발음되지만, ‘살’ 뒤에 이어지는 ‘거’를 [꺼]로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- ④ ‘닭지’는 탈락이 아닌 교체(음절의 끝소리 현상)에 의해 [닥지]로 바뀌고 된소리되기에 의해 [닥찌]로 발음된다.

6. 정답 ③

㉠은 교체, ㉡은 탈락, ㉢은 첨가, ㉣은 축약 현상이다. ‘앞마당[압마당→암마당]’, ‘부엌만[부억만→부영만]’에는 모두 교체(음절의 끝소리 현상, 비음화)가 일어나므로 적절하다.

- ① ‘난로[날로]’와 ‘말이[마지]’는 첨가가 아닌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.
- ② ‘뜨- + -어서→떠서’와 ‘좋아서[조아서]’는 축약이 아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.
- ④ ‘맞습니다[만습니다→만씁니다→만씀니다]’에는 교체 3번이 일어날 뿐 축약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.
- ⑤ ‘쌀은[싸은]’과 ‘잠그- + -아서→잠가서’는 각각 ‘ㅎ’과 ‘ㄹ’이 탈락하므로, 동일한 종류의 음운이 탈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7. 정답 ①

㉠은 ‘ㅎ’과 ‘ㄷ’이 축약되어 [ㅈ]으로 발음되고, ㉡은 ‘ㅂ’과 ‘ㅎ’이 축약되어 [ㅍ]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.

- ② ㉢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으로,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.
- ③ ㉣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- ④ ㉠은 뒤 음절의 초성이 변화하는 변동이 아니다.
- ⑤ ㉡은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
8. 정답 ④

㉠은 ‘ㄴ’ 첨가 현상이다. ㉡ 발이랑[반이랑→반니랑→반니랑]의 두 번째 변동, ㉢ 한여름[한녀름], ㉣ 들일[들닐→들릴]의 첫 번째 변동에는 ‘ㄴ’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.

- ① ㉣은 구개음화 현상이다. ㉡의 발이랑[반니랑]

의 ‘이랑’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
- ② ㉣은 ‘ㅎ’ 탈락 현상이다. ㉣의 당소[다쏘]는 ‘ㅎ’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- ③ ㉣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이다. ㉣의 밭에[바테]는 연음이 일어났을 뿐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.
- ⑤ ㉣은 비음화 현상이다. ㉣의 들일[들닐→들릴]에는 유음화가 일어날 뿐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.

9. 정답 ③

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뉘는 기준은 입술 모양(㉡)이 적절하며, ㉢에 들어갈 모음도 ‘ㅅ’로 적절하다. ‘ㅅ’는 원순 모음이자 중모음이므로, 평순 모음이자 고모음인 ㉠(‘ㅣ’)보다 입술을 둥글게 하고 입을 더 벌려서 발음해야 한다.

- ① ‘ㅣ’는 고모음이므로 입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모음(저모음)이 아니라 조금 여는 모음이다.
- ② ㉢은 ‘ㅈ’가 아닌 ‘ㅊ’이며, 고·중·저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턱의 높이가 아니라 혀의 높이이다.
- ④ ‘ㄴ’은 중모음이므로 고모음인 ㉠(‘ㅣ’)보다 혀의 높이가 낮다.
- ⑤ ㉢에 해당하는 단모음은 없다.

10. 정답 ⑤

[ㅈ]에 포함된 단모음은 ‘ㅈ’이고 [ㅊ]에 포함된 단모음은 ‘ㅊ’이다. ‘ㅈ’는 후설 모음, ‘ㅊ’는 전설 모음이므로 ‘ㅈ’가 ‘ㅊ’보다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쪽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- ① <보기>에서 ‘ㅈ’는 [ㅈ/ㅊ]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.
- ② ‘인류’에서 ‘인’에 사용된 [ㅣ]는 단모음이므로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고 ‘류’에 사용된 [ㅣ]는 반모음이므로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없다.
- ③ [ㅈ]는 저모음, [ㅊ]는 중모음이다. 저모음은 중모음보다 입이 더 커지고 혀의 위치가 낮아진다.
- ④ [ㅈ]는 단모음이고 [ㅊ]는 반모음 ‘ㅣ’와 단모음 ‘ㅈ’가 결합된 이중 모음이다.

11. 정답 ②

‘ㅈ’는 저모음, ‘ㅊ’는 중모음이다. 중모음은 저모음

보다 혀의 높이가 더 위쪽에 있어야 하므로 적절하다.

- ① ‘ㅈ’와 ‘ㅊ’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, 두 모음 모두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해야 한다.
- ③ ‘ㅈ’는 저모음, ‘ㅊ’는 중모음이다. 저모음은 중모음보다 입이 더 커지고 혀의 위치가 낮아진다.
- ④ ‘ㅊ’와 ‘ㅈ’는 모두 단모음이므로, 두 모음 모두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.
- ⑤ ‘ㅊ’와 ‘ㅈ’는 모두 전설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앞에 있어야 한다.

12. [정답] ④

‘불꽃→[불곤]’은 ‘ㅈ’이 ‘ㄷ’으로 교체되었다. ‘ㅈ’은 경구개음이자 파찰음, ‘ㄷ’은 치조음이자 파열음이다. 따라서 조음 방법뿐만 아니라 조음 위치도 바뀌었으므로 조음 위치가 그대로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- ① 첫음절 끝의 파열음인 ‘ㅂ’이 자음 ‘ㅁ’과 결합하여 비음 ‘ㅁ’으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.
- ② 세 번째 음절 ‘루’의 유음 ‘ㄹ’로 인해 두 번째 음절의 종성인 비음 ‘ㄴ’이 유음 ‘ㄹ’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하다.
- ③ 치조음이자 파열음인 ‘ㅌ’이 경구개음이자 파찰음인 ‘ㅈ’으로 바뀌었으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.
- ⑤ 연구개음이자 파열음인 ‘ㄱ’이 연구개음이자 비음인 ‘ㅇ’으로 바뀌었고, 치조음이자 유음인 ‘ㄹ’이 치조음이자 비음인 ‘ㄴ’으로 바뀌었다. 따라서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.

13. [정답] ②

㉠: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인 ‘ㄷ’이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인 ‘ㅈ’으로 바뀌었으므로 앞 자음(‘ㄷ’)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.

㉡: 잇몸소리이자 비음인 ‘ㄴ’이 잇몸소리이자 유음인 ‘ㄹ’로 바뀌었으므로 뒤 자음(‘ㄴ’)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.

㉢: 입술소리이자 파열음인 ‘ㅂ’이 입술소리이자 비음인 ‘ㅁ’으로 바뀌었고, 잇몸소리이자 유음인 ‘ㄹ’

이 잇몸소리이자 비음인 ‘ㄴ’으로 바뀌었다. 따라서 뒤 자음(‘ㄹ’)의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㉣: 파열음인 ‘ㅍ’이 파열음인 ‘ㅃ’으로 바뀌었고, 마찰음인 ‘ㅅ’이 마찰음인 ‘ㅆ’으로 바뀌었다. 따라서 ㉡의 앞뒤 자음은 모두 변동 전후의 조음 방법이 같다.

㉤: 잇몸소리이자 마찰음인 ‘ㅅ’이 잇몸소리이자 마찰음인 ‘ㅆ’으로 바뀌었으므로 조음 위치뿐만 아니라 조음 방법 역시 바뀌지 않았다.

14. [정답] ③

㉠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으로, 받침 ‘ㅎ’이나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예사소리 ‘ㄱ, ㄷ, ㅂ, ㅈ’가 각각 [ㄱ, ㄷ, ㅍ, ㅊ]로 발음되더라도 조음 위치는 유지된다. 따라서 조음 위치를 달리하여 발음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① ‘ㄱ→ㅇ’, ‘ㅅ→ㄴ’, ‘ㅍ→ㅁ’은 각각 조음 위치는 같지만 조음 방법만 변화했으므로 적절하다.

② ‘담력[담녁]’을 보면 받침소리가 파열음이 아닌 ‘ㄹ’인 경우에도 ‘ㄹ’이 [ㄴ]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‘막론[망논], 협력[협녁]’을 통해 ‘ㄹ’ 앞에 오는 파열음 받침소리 ‘ㄱ’과 ‘ㅂ’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비음 [ㅇ], [ㅁ]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④ ㉡은 모두 ‘ㄴ’이 [ㄹ]로 발음되는데 비음 ‘ㄴ’과 유음 ‘ㄹ’은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 방법이 다르므로 적절하다.

⑤ ‘음운론[음문논]’은 ‘ㄹ’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[ㄴ]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주고, ‘생산량[생산냥]’은 ‘ㄴ’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[ㄹ]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준다.

15. [정답] ①

㉠: 용언의 어간 말 비음 ‘ㅁ’ 중 ‘ㅁ’ 뒤에서 ‘ㅈ’이 [ㅆ]으로 발음된다. / ㉡: 관형사형 어미 ‘-을’ 뒤에서 ‘ㄱ’이 [ㄱ]으로 발음된다.

- ② ‘국밥’은 용언이 아니다.
- ③ ‘출석’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.
- ④ ‘책방’은 용언이 아니다.
- ⑤ ‘발달’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.